

김도종 원광대 총장, 창조경영대상 수상

인재경영 부문에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의 영예 안아
국제·학제·직제 플레이던트 수업 통한 교육 개혁 박차

김도종 원광대학교 총장이 2년 연속 2018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김도종 총장은 2017년에 이어 인재경영 부문에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0회를 맞은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은 중앙일보와 중앙산체이가 주최하고 JTBC, 일지리위원회,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창조적인 경영 환경 개척에 힘쓰는 경영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후보군 조사에 이어 CEO의 경영 비전·전략·철학, 비전제시, 부문별 활동 및 성과, 전략적 브랜드 가치 등 항목별 평가를 거쳐 총

14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도종 총장은 창의적인 문화인재 양성 및 대학의 재도약기반 마련과 대한민국 신산업 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자생력 있는 미래형 대학 만들기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대학의 개념을 바꾸고 창조(創職), 창업(創業)능력을 길러 미래 직업을 창조하자'는 경영철학 실천에 앞장서 '학과+1연구소+1기업'의 융합형 대학(Convergence University) 구축, '학습-연구-창업'의 선순환 고리 만들기, 산학 일체형 대학 추구 등 학과 특성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다양한 시도와 틀을 만들고, 산업을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5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인문한국플러스(HK+) 해외지역 분야 대형사업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낸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융합과 혁신'을 강조하는 김



김도종 원광대학교 총장이 2년 연속 '2018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도종 총장은 글로벌 활동능력을 기르는 '국제(國際)', 여러 학문 영역을 이해하는 '학제(學際)', 다양한 직업 능력을 갖추는 '직제(職際)' 등 삼합(三合) 신사(三合紳士)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플레이어(player)와 스튜던트(student)를 결합한 체험형 학습인 플레이던트(Playdent) 수업을 통한 교육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변화 사회에 맞서는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대학발

진과 혁신을 위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김도종 총장은 "앞으로도 융합과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5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준비할 수 있는 사농공상(士農工商) 직능 일체형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각자의 개성이 살아나는 개별화 사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융합해 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13일까지

군산시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간여행마을과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내 초중고 학생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시간여행축제를 모든 연령대가 즐기며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군산을 바로 알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모집분야는 시간여행축제 퍼레이드 참여, 차 없는 거리축제 구간에서 학생들이 만든 제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 운영, 각 학교의 동아리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나눠 모집한다. 응모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군산시 관광진흥과 축제계로 신청하면 되고 선정대상자는 오는 20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모집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역사교육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 채널을 마련하여 향후 시간여행축제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454-330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취임식 취소하고 현장행정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 위해 행정력 집중" 긴급 지시

정헌을 익산시장이 당초 2일로 예정된 제9대 익산시장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 피해예방장학활동을 펼쳤다.

지난 1일 태풍 '쁘라베룬'이 북상하자 정헌을 익산시장은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긴급 지시했고, 2일 아침에는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지역 및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또한 "취임식과 관련해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재난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번 취임식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이 주인 되는 익산이라는 정헌을 시장의 철학에 따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린 취임식'으로 간소하게 개최될 계획이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이달부터 검역감염 오염지역 변경

익산시가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감염 오염지역이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 오염지역을 규정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검역감염 오염지역은 기존 58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라위와 짐바웨는 콜레라, 케냐와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의 경우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at.g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변경된 검역감염 오염지역과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광 보건소장은 "검역감염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인구 올들어 6개월간 3800여명 감소

올들어 익산시 인구가 무려 3815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지난해말까지 겨우 30만선을 유지했으나 올들어 6개월간 급격히 감소, 올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29만637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전인 5월말 29만6763명에 비해 391명이 줄어났고, 6개월전인 지난해말 30만4459명에 비해 3815명이 줄어든 것이다.

익산시 인구는 2001년에 33만4757명에 달하는 등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처럼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출산율 저하와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전출 등의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칫 29만명선도 위협받을 수 있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조규대·부의장에 윤영숙 의원 선출

익산시의회가 2일 오전 제8대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열어 의장에 조규대의원, 부의장에 윤영숙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투표에서 조규대의원은 제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당초 예상대로 의장에 당선됐다. 윤영숙의원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부의장으로 뽑혔다.

신임 의장에 당선된 조규대 의원(한일, 황등, 한라, 응포, 성당, 용안, 용동)은 시민·현장·정책 중심으로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의 미래를 알차게 설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의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전반기 의회에서는 합의와 협치를 핵심가치로 삼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규대 의장 윤영숙 부의장

의회다운 의회를 이끌 것"이라는 소감을 피력했다.

윤영숙 부의장(영등2, 삼성)은 "우리 의회에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면서 "익산의 현안문제와 우리 시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시민들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규대 의장은 5선(4,5,6,7,8대)의원으로서 그동안 제8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의회 내 강력한 리더십과 시민소통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숙 부의장은 2선(7,8대)의원으로서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성을 살려 익산시의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2일 오후 4시에 개최 예정이던 제8대 익산시의회 개원식을 태풍 '쁘라베룬' 북상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추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 후 간소하게 치렀다.

/익산=우병희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후보 3명 등록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정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지역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날 27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전국 2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군산지역위원회는 현 체정 룹 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 군산 시장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문배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조성원 변호사 등 3명이 후보에 등록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군산지역위원장은 민선 7기 군산시의회와 8대 군산시의회의외의 지방정부와의 역할 정립과 2020년 제21대 총선 승리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